

#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. 11. 26. 선고 2014고단 26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,사기,상해,명예훼손,협박,모욕

##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

판

결

사건	2014고단2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, 사기, 상해, 명예훼손, 협박, 모욕
피고인	A
검사	김소현(기소), 손정현(공판)
변호인	변호사 B(국선)
판결선고	2014. 11. 26.

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C, D, E에 대한 각 협박의 점 및 F, G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범죄사실

#### 1.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

피고인은 2010. 6.30.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잦은 다툼과 소란으로 수차례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.

피고인은 2014. 7.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(47세)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. 10. 12.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였다.

#### 2. 사기

피고인은 2014. 8.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아파트 119동 옆 커피 자판기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

개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 C에게 "나에게 남은 휴대폰이 1대 있는데, 밀린 요금만 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"라고 거짓말을 하였다.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으로 명의자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,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린 요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요금 명목으로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.

### 3. 상해

피고인은 2014. 9. 6. 01:00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K(50세)를 발견하고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,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.

### 4. 명예훼손

피고인은 2014. 9.28. 08:40경부터 같은 날 11: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아파트 117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115동 대표인 피해자 L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"115동 동대표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'죽여 버리겠다'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,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동대표를 하나, 동대표에서 물 리나라"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,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외치고, 위 아파트 상가 외벽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벽보를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.

### 증거의 요지

#### 1. 피고인의 범정진술

1. L, M, F, G, N, K, C, J, D, O, P,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

#### 1. F의 고소장

1. 피의자가 피켓을 들고 피해자 L를 비방하는 모습 사진, 피의자가 119동 상가에 붙인 피해자 L 비방 글 사진 모습

#### 1. 피해자 M, L의 각 상처 사진

1. 수사보고(피해자 K 진료기록 첨부), 의무기록 사본

1. 판시 상습성 : 수사보고(피의자의 최근 동향 수사),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, 범행횟수,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

### 법령의 적용

#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, 형법 제260조 제1항(포괄하여, 상습폭행의 점), 형법 제257조 제1항(사기의 점, 징역형 선택), 형법 제257조 제1항(상해의 점, 징역형 선택), 형법 제307조 제2항(명예훼손의 점, 징역형 선택)

####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#### 1. 작량감경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

### 양형의 이유

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, 상습적으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. 다만, 피고인이 자백, 반성하는 점,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,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,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,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과 환경,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, 범행 전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.

공소기각 부분

#### 1.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

##### 가. 협박

(1) 피고인은 2014. 9. 초순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C이 21만 원 중 10만 원이라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"이 씹할 년아, 내가 돈을 왜 주냐, 법원에 소송을 해서 10만 원보다 더 많이 내게 할 거다, 법원에서 보자"라고 말하는 등 마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.

(2) 피고인은 2014. 9. 초순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 D(여, 67세)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"야이 쌍년아, 내가 그 돈을 안 갚냐, 개년아, 그만 이야기해라, 더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"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.

(3) 피고인은 2014. 9. 26.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 E(여, 48세)가 피고인이 붙여 놓은 벽보를 떼어낸 것을 오해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 하며, 피해자에게 "씹할 년아, 죽여버린다"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.

##### 나. 모욕

(1) 피고인은 2014. 9. 12.경 위 I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F(여, 51세)이 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, G, N 등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"남자한테 돈 받고 몸 팔아서 돈 버는 년이 뭘 돈을 갚으라고 하나, 나한테 몇 십만 원을 빌려가서 못 받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300원 만도 못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냐, 이 개보지 같은 년아, 하수도 구멍보다 못한 년, 더러운 년아, 창녀 같은 년아"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(2) 피고인은 2014. 9. 27. 14:00경 위 I 아파트 부근 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N, Q 등 위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(여, 53세)에게 "개보지 같은 년, 에이즈 걸린 보지 안 먹는다, 씹할 년, 보지 팔아서 먹는 년"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(3) 피고인은 2014. 9. 28. 13:00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N, Q등위아 파트 주민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(여, 53세)에게 "에이즈 걸린 년, 보지 안 먹는다, 개보지, 창녀"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#### 2. 판단

살피건대,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,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, 기록에 의하면 협박의 피해자 C, D, E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. 11. 21.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모욕의 피해자 G가 2014. 11. 21.. 피해자 F이 2014. 11. 25.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.

판사 김규동